

석유화학, BRICs 시장을 개척하라!

KOTRA, 세계적 원자재난으로 수입증가 ... EU 시장 개척도 가능성 커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EU 및 BRICs 국가의 높은 수입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한국상품에 대한 4/4분기 수입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12-13% 증가한 772억-78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KOTRA(사장 홍기화)가 30대 한국상품 수입국의 해외 바이어와 해외주재 한국 지·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2005년 4/4분기 해외시장 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4분기 30개국의 한국제품 수입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2-13% 증가해 4/4분기 해외시장 전체의 한국산 수입수요도 2자리수 증가세를 무난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4/4분기에 20% 내외의 높은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을 비롯해 BRICs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전체 수입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22%대의 수입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나, 미국시장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허리케인 Katrina의 피해에 2004년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기술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부진한 수출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품목별로는 세계적인 원자재난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제품 강세가 여전하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류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나,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컴퓨터·가전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원화가치 절상 및 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4/4분기 한국산 수입수요는 2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연간 수입수요는 약 28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10/10>